

# 젠더와 교육기회 불평등: 고등교육 이수기회에 나타난 젠더와 가족배경 효과

성문주\*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50년대-1990년대 고등교육 이수기회에 나타난 젠더와 가족배경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가족배경에 따른 젠더 차이의 상이성, 즉 아들 중심의 교육투자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노동연구원의 1998년 한국노동패널 1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의 직업을 중심으로 5개(전문직·관리직, 사무직, 자영업, 농민, 노동자)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은 고등교육 이수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비연속적 모델과, 고등교육 이수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이수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는 연속적 모델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항 로짓분석(binary logi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1950년대-1990년대 교육받은 응답자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1943-1952년, 1953-1962년, 1963-1972년의 세 코호트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 이수기회에서 가족배경과 젠더 불평등이 출생 코호트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1943-1952년 출생 코호트에서는 남녀 차이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이후의 두 코호트에서는 전문직·관리직 등 상층 출신 내의 젠더 격차가 농민, 노동자계급 출신보다 적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여성의 낮은 교육 이수기회를 성별 차이로 국한하는 설명에서 발전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남녀차별의 상이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향후 젠더 연구에서 가족의 자원, 사회문화적 맥락 등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젠더, 고등교육 이수기회, 상급학교 진학, 가족배경, 교육 불평등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mjseong@nsu.ac.kr

『젠더와 문화』 제4권 1호(2011) pp. 7-42

© 201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본 논문은 교육기회 불평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이수기회에 나타난 젠더와 가족배경 효과가 독립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효과, 즉 가족배경에 따른 젠더 격차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석 시기는 교육에서 젠더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났던 시기인 1950년대-199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950년대-1990년대 시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선정되었다. 먼저, 해방 후의 일관성 있는 교육체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체계)라는 장점과, 둘째, 여성의 교육기회가 남성보다 현저히 낮아 젠더 차이를 명확히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세기 중반의 주목할 만한 사회변화 중 하나는 대중교육의 확대일 것이다. 일부 상층의 전유였던 교육이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었고 여성의 교육기회도 높아졌다. 그러나 여성을 포함한 대중에게 교육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대는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의 자녀는 무상의무교육 이후의 단계에서는 높은 교육비 부담으로 상급 단계로 진학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한 진학보다는 경제 활동을 하여 가족의 주된 수입원의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한다. 제도적인 또는 명목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밝히는 것은 교육이 개인의 삶의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즉, 교육기회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론에서 설명하듯이 산업화 사회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더 좋은 직업과 소득을 획득하기 때문에(Becker, 1993; Boudon, 1974), 학력에 따른 직업과 소득 차이가 궁극적으로는 개인 삶의 질의 불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회 불평등 연구에서 특히 교육기회에서의 성별 차이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아 오지 못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 성별에 따른 교육 차별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은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다. 교육기회 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가족배경과 젠더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Goldthorpe, 2000; Halsey et al., 1980; Jonsson et al., 1996; Mare, 1981; Shavit and Blossfeld, 1993).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가족배경과 젠더를 독립된 메커니즘으로 간주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 성별에 따른 교육에 대한 기대와 투자가 다를 수 있는 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다. 즉 상층계급 출신일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교육기회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는 부모의 계급과 본인 성별의 상호 관련성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국내의 교육불평등 연구들도 서구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산업화 이후 한국사회의 교육불평등이 가족배경과 젠더에 의해 일정 부분 설명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가족배경에 따른 젠더 차이의 상이성, 즉 아들 중심의 교육 투자가 부모의 계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기현, 2004; 김영화, 2000; 장상수, 2001; Park, 2007; Phang, 200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기회의 성별 차이는 가족배경과 상호 연관되어 작용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 고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는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높은 교육기대를 가질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부모가 노후대비의 자녀 의존도가 높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교육투자에서의 아들, 딸 차별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젠더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여

겨진다.

젠더를 통제변수처럼 취급한 통계방법론에서 벗어나 여성 내의 가족배경 효과를 살펴본 장상수(2006)와 가족배경과 젠더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성(Seong, 2009)의 연구는 상층계급의 딸들이 농민, 노동자계급 출신보다 대학교 진학 기회가 많으며, 교육이수 연한에서 출신계급에 따른 젠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장상수(2006)의 연구는 여성만을 분석하였기에 여성 내의 가족배경 차이만을 알 수 있으며, 성(2009)의 연구는 교육이수 연한에서의 가족배경과 젠더의 상호 연관적인 불평등만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장상수(2006)와 성(2009) 연구에서 더 확대하여 고등교육(전문대, 교육대학, 일반대학 등 포함)에 초점을 두어 젠더와 가족배경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 이수기회의 젠더 불평등이 가족배경에 따라 상이한가?’ 이 질문은 다시 두 개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뉜다. (1) 고등교육 이수기회에 미친 젠더와 가족배경,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는 무엇인가? (2) 고등교육 이수를 교육과정의 연속적인 기회의 결과로 봤을 때, 젠더와 가족불평등 그리고 상호작용이 교육단계별로 동일한가 아니면 단계별 차이가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여성교육 기회 문화와 부모의 경제적 합리성

한국에서 여성은 근대교육이 도입되기 전인 구한말 시기까지 서당을 포함한 공교육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교육기회가 박탈되어 상층계급의 여성들조차 가부장 문화와 유교사상에 의한 ‘현모양처’ 교육

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에서의 개인 수업만이 가능하였다. 교육에서의 전통적인 성차별은 1895년 고종의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고, 1909년 3,000여 개의 민간 사립학교 설립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문교부, 1988), 근대적 대중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195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공교육에서의 남녀평등적인 교육정책이 제도화된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취학률은 1945년 64%에서 1948년 74.8%로 증가하고, 1954년 82.5%, 1959년에는 완전 취학률이라고 할 수 있는 96.4%로 급상승하였다(문교부, 1988). 이처럼 국가의 전 국민 대상 공교육 의무화 제도의 강력한 실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 전통과 여성교육 기피 문화가 강했던 한국사회에서 학령기 여학생의 교육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성문주, 2009).

여성의 학력신장이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아선호 사상과 여성교육 기피문화의 변화에 의해 촉진되었다기보다는 이처럼 국가의 공교육 확대정책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여성의 낮은 상급학교 취학률과 진학률을 통해 알 수 있다(성문주, 2009).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취학률은 남녀 모두 완전 취학률에 도달했지만,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취학률을 보인다.

1970-2005년 취학률을 나타내는 아래의 <표 1>에 의하면, 1970년 중학교 취학률에서 남학생(44%)이 여학생(30%)보다 높고, 고등학교 취학률 역시 남학생(24%)이 여학생(17%)보다 높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남녀 모두 낮지만, 남학생(7%)이 여전히 여학생(3%)보다 높아 의무교육 단계까지만 남녀 취학률이 같으며, 이후의 상급학교 단계에서는 여전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취학률을 보였다.

<표 1> 취학률<sup>1)</sup>, 1970-2005(단위: %)

연도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sup>2)</su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70	43.5	29.7	23.7	16.9	7.3	3.3
1975	62.7	49.7	36.4	26.2	8.5	4.3
1980	75.5	70.9	52.9	44.3	15.4	6.5
1985	82.3	81.7	66.5	61.7	28.7	16.1
1990	91.2	92.0	81.4	77.2	26.5	19.0
1995	93.4	93.7	83.3	82.4	40.1	31.4
2000	94.3	95.8	89.5	89.4	54.2	46.1
2005	93.7	95.0	91.7	92.7	64.9	59.4

주 1) 취학률 = 취학 적령인구 대비 실제 취학자의 비율.

2) 고등교육기관: 전문대, 일반대학, 교육대학 등.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연보』

취학률의 시기별 변화를 보면, 중학교 취학률이 보편화된 1980년대부터 남녀 차이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사라졌고, 1985년 도서산간지역부터 시작된 중학교 의무교육 제도를 반영하듯 1990년부터 남녀 모두 90%를 상회하는 취학률을 보인다. 그러나 고등학교 취학률 격차는 2000년 이후에야 사라진다. 1980년도 고등학교 취학률은 남학생이 53%, 여학생이 43%로 남학생이 더 높았지만, 젠더 차이는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0년도에는 동일한 남녀 취학률을 보인다(89%). 한편,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남녀 격차가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남성이 더 높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05).

전체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 비율인 진학률의 1970년대-1990년대 추이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진학률을 보이다가, 교육

단계별로 시기 차이는 있지만 차츰 그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02; 통계청, 2006). 예를 들어 통계청 조사(2006)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은 1970년대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1980년 들어서면서 완전 진학률(1981년 남자 97.8%, 여자 95.0%)로 남녀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 남녀 격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사라진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높아, 1981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남학생의 40.2%가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반면, 고등학교 졸업 여학생의 28.4%만이 진학하였다. 고등학교 진학률의 젠더 차이는 1990년부터 현격하게 감소하여, 1990년 진학률은 남학생(33.9%)과 여학생(32.4%)이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며, 2000년대 중·후반까지 남학생이 약간 높은 진학률을 유지한다(통계청, 2006).<sup>1)</sup>

이처럼 의무교육 단계와 사회적으로 대중화된 교육단계에서만 남녀 취학률과 진학률 간의 차이가 없고, 그 외의 단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을 보인 것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교육기회가 교육확대정책으로 인해 추동된 측면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젠더 불평등과 관련해서 여성교육 기회 문화와 같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투자에 대한 부모의 합리적 선택이다. 물론 교육 이수 기회 또는 교육성취에서 개인의 지적 능력과 목표의식, 기대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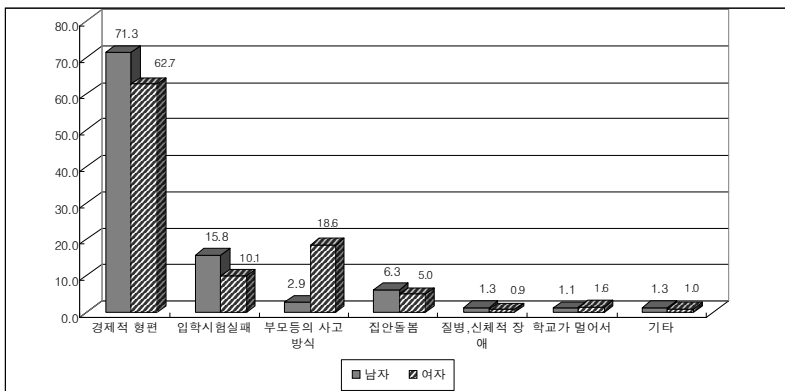
1)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남녀 격차는 크게 감소되고, 오히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 2009년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82.4%로 남학생의 진학률(81.6%)보다 높았으며, 2010년에도 여학생의 높은 진학률(여학생 80.5%, 남학생 77.6%)은 이어졌다(통계청, 2010: 14).

성취도, 친구 집단, 교사 등이 교육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교육기회(또는 교육성취)의 구조적인 측면인 가족의 경제력과 문화로서, 특히 여성의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중요하다(Bowman and Anderson, 1982). 왜냐하면, 부모의 인식과 태도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경제적으로 열악한 부모는 아들 중심의 교육투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경향이 높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는 성별 구분 없이 교육투자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가족의 경제력과 함께, 부모의 사고방식(특히 남아선호사상)이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기회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을 앞에서 살펴본 취학을, 진학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대중교육의 확대정책으로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높아졌지만, 이것은 의무교육 단계에 머무르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의무교육 이상의 상급학교 진학률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차이는 격차가 컸다. 이것은 초등과 중등교육의 확대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의 증가는 진학 희망자에 비해 더디게 확대되었고, 등록금과 교재비, 생활비 등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교육투자 비용이 높아, 부모의 지원에 대부분의 의존하는 한국사회에서<sup>2)</sup> 남성 중심의 고등교육 투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교육이 부모의 노후대비의 중요한 요소인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노후의 물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기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Bowman and Anderson, 1982; Jonsson, 1993; Kelly and Elliot, 1982).

2) 예를 들면, 1985-2005년 기간 동안, 1가구의 평균 교육비 지출이 연간 지출액의 10%에 달하고 이 중 80%가 부모의 수입에 의존한다(통계청, 2006).



아래의 <그림 1>은 기대했던 교육수준에 못 미치는 교육을 받은 이유에 대한 2004년 사회조사통계 결과로(통계청, 2004), 교육기회의 젠더 차이와 관련해서 여성의 교육기회가 부모의 인식과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 남녀 모두 '경제적 이유'(남자 71.3%, 여자 62.7%)를 우선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여성 응답자의 18.6%는 '부모의 반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단지 2.9%만이 '부모의 반대'라고 대답하고 있다. 남성 응답자에게서 경제적 이유 다음으로 영향을 준 것은 '입학시험 실패'(15.8%)였다. 따라서 이 통계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교육에서의 젠더 불평등에는 경제적 이유와 부모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 『2004 사회조사』

<그림 1>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단위 %)

그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딸은 결혼하면 출가외인이 되지만 아들

은 가계를 이으며 은퇴한 나이 든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sup>3)</sup> 예를 들면,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묻는 사회조사(통계청, 1998)에서 ‘본인 스스로 노후 책임’은 8.1%에 불과하고 ‘자녀들에게 의존한다’가 89.9%로 매우 높다. 자녀에게 의존한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장남을 포함한 아들’이 부양하는 비율은 29.4%, ‘딸’의 부양은 0.5%, ‘아들과 딸 모두 책임’은 14.5%, ‘능력되는 자녀’가 부양하는 비율은 45.5%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장남 위주, 아들 위주의 노후대비 사고는 21세기 들어 많은 변화가 생겨, 자녀 중심의 가족에 의존하는 노후대비에서 점차 정부와 사회의 복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21세기의 자녀의 교육투자에서의 남녀 차이는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측된다.<sup>4)</sup>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대상 시기인 1950년대-1990년대까지는 여전히 아들 중심의 노후대비가 지배적이기에 부모의 전통적인 사고가 자녀의 교육투자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으로 부모의 여성교육 기피 문화와 가족의 경제적 합리성이 타당하다고 여기며, 한발 나아가 가족배경과 전통적 여성차별 문화가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가정한다.

3) 이러한 전통문화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데, 브린튼(Brinton, 1993)은 일본에서의 남녀차별을 야기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결혼한 딸을 원가족에서 배제하는 문화에서 찾고 있다.

4) 동일한 조사로 2002년의 변화를 보면, ‘본인 스스로’는 9.6%, ‘자녀 의존’은 70.7%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가족에 대한 의존이 높았다. ‘장남을 포함한 아들’이 부양 29.0%, ‘딸’은 1.0%, ‘아들과 딸’은 19.5%, ‘능력되는 자녀’ 부양은 21.2%이다(통계청, 2002).

### 3. 연구방법

#### 1) 자료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1998년 한국노동패널 1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는 199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10% 표본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이 중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부를 대상으로 계통추출방법으로 5,000가구를 표본 추출한 후, 조사대상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구성원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의 총 조사대상자 13,321명 중 남성의 군복무를 고려하여 대학교 최소 졸업 연령을 26세로 산정하여 26세에서 55세(1998년 인터뷰 시점) 응답자만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총 6,873명). 이 중 남성은 3,458명, 여성은 3,415명이고, 응답자들은 10년 단위의 세 출생 코호트(1943-1952, 1953-1962, 1963-1972)로 분류된다. 세 코호트는 각각 해방 이후 출생하여 사회경제적인 혼란시기, 산업화 초기의 경제발전과 중등교육의 확대의 시기, 경제발전과 고등교육 확대의 시기를 반영한다. 아래의 <표 2>는 각 코호트별 취학연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취학연도와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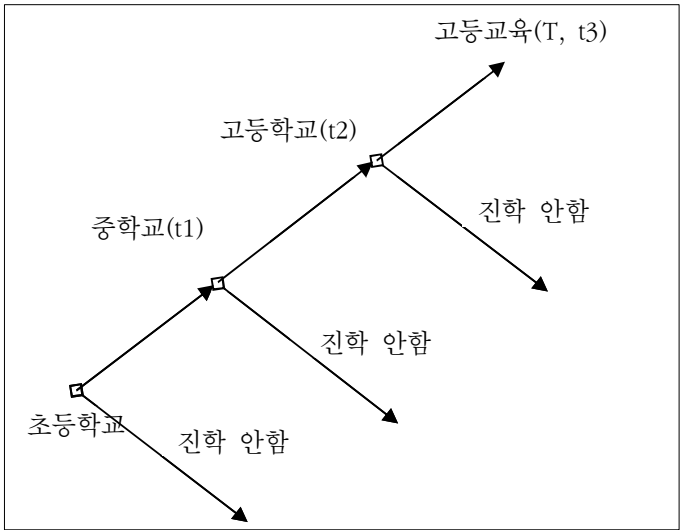
코호트(연령)	1943-1952 (46-55세)	1953-1962 (36-45세)	1963-1972 (26-35세)
취학연도			
초등학교(6년)	1950-1959	1960-1969	1970-1979
중학교(3년)	1956-1965	1966-1975	1976-1985
고등학교(4년)	1959-1968	1969-1978	1979-1988
고등교육기관 <sup>1)</sup>	1962-1971	1972-1981	1982-1991

주: 1)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 교육대학, 일반 대학교 등 포함.

2) 분석 방법과 변수

(1) 분석 방법

고등교육 이수에 미친 가족배경과 젠더 효과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짓분석(binary logit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항 로짓분석은 다시 비연속 로짓분석과 연속 로짓분석 두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연속 로짓분석은 고등교육기관 졸업 대비 비졸업(success or fail, T)만을 살펴보았다. 연속 로짓분석은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기회에 대한 각 단계별의 진학 가능성에 대한 연속적 분석’ (Mare, 1981)으로, 초등교육→중학교(t1)→고등학교(t2)→고등교육기관(t3)까지 각 교육단계의 진학(과 졸업)을 분석하여 각 교육 단계별 젠더와 가족배경 불평등 분석을 통해 교육 불평등의 단계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2> 교육수준별 진학단계

이항 로짓분석 공식은 다음과 같다:

$$Y(T) = P(T) / 1-P(T) \quad \dots\dots \text{비연속적 모델(1)}$$

$$Y(tk) = P(tk) / 1-P(tk-1) \quad \dots\dots \text{연속적 모델(2), } k = \text{상급단계}$$

이 수식에서  $Y(T)$ 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지 않을 확률  $(1-P(T))$ 에 비교해서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할 확률  $(P(T))$ 의 오즈비(Odds ratio)고,  $Y(tk)$ 는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을 확률  $'1-P(tk-1)'$ 에 비교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할 확률  $'P(tk)'$ 의 오즈비다.

## (2) 변수

**고등교육졸업:** 종속터미변수로 고등교육 이수는 1, 이수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상급학교진학:** 상급학교 진학(과 이수)은 1, 미진학은 0의 값을 갖는다. 상급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가족배경:** 응답자가 14세에 아버지의 직업을 바탕으로, 에릭슨과 골드소르프(Erickson and Goldthorpe, 1992)의 EGP 계급모형(class schema)을 사용하였다. 7개 계급으로 구성된 EGP계급에서 숙련, 미숙련, 농업 노동자계급을 국내 실정에 맞게 노동자계급 하나로 구분하여, 본 논문에서는 총 5개의 분류법을 사용하여 전문직·관리직(대자본가 포함), 사무직, 자영업, 농민, 노동자로 구분한다.<sup>5)</sup>

5) 사회과학에서 가족배경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급,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 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부모의 소득 자료가

**한부모(어머니)가족:** 어머니만 있는 경우는 1, 그 외의 경우는 0의 값을 갖는다.

**성:** 더미변수로 여성은 1의, 남성은 0의 값을 갖는다.

#### 4.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

분석 대상인 6,873명의 학력과 아버지 직업의 코호트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먼저 학력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 코호트 모두에서 남성의 학력이 여성보다 높다. 예를 들면 1943-1952년 코호트 남성의 40.3%가 고등학교, 23.7%가 중학교 학력인 반면, 여성의 44.1%가 초등학교, 25.8%가 중학교로 여성의 학력이 훨씬 낮았다. 이후의 두 코호트에서는 공교육의 확대로 남녀 모두 학력이 높아져, 1953-1962년 코호트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48.5%)와 고등교육(26.1%) 이수 비율이 높아졌다.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 비율이 1943-1952년 코호트보다 거의 2배(45.1%)로 증가하고, 대학교육 이수자도 10.4%로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남성보다 큰 특징을 보인다. 가장 젊은 코호트인 1963-1972년 코호트에서는 고등교육 학력 비율이 남녀 모두 크게 증가한다(남성은 43.1%, 여성은 27.1%). 세

---

없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계급으로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에릭슨과 골드소프(Erickson and Goldthorpe, 1992)의 EGP 계급모형(class schema)은 고용관계(임금노동자 여부), 농민 여부, 직업의 전문성 여부(전문직/일반 사무직), 숙련성 여부(숙련/비숙련)를 기준으로 하여 계급을 구성하고 있다. EGP 계급모형의 한국 적합성은 기존 연구에서 검증되었다(장상수, 2001; Seong, 2009). 본 논문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계급' 용어와 함께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코호트의 학력 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학력 수준이 높아져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이 점점 대중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큰 폭으로 높아져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갈수록 남녀 격차가 적어졌다. 한부모 가족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가 어머니만 있는 한부모 가족으로 나타난다.

<표 3> 코호트별 학력분포와 아버지의 직업(단위: %)

	1943-1952	1953-1962	1963-1972
남성			
초등학교	18.4	9.6	2.4
중학교	23.7	15.8	7.0
고등학교	40.3	48.5	47.5
고등교육	17.6	26.1	43.1
	(n=913)	(n=1,322)	(n=1,223)
여성			
초등학교	44.1	16.6	2.4
중학교	25.8	27.9	8.5
고등학교	24.9	45.1	62.0
고등교육	5.2	10.4	27.1
	(n=868)	(n=1,297)	(n=1,250)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관리직	5.5	8.6	11.0
사무직	5.6	8.5	9.8
자영업	11.7	13.8	17.6
농민	71.4	60.8	44.1
노동자계급	5.8	8.3	17.5
전체(N)	1,781	2,619	2,473

〈표 4〉는 성별, 코호트별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 분포를 나타낸다(전문대, 일반대 등 포함). 일반적으로 상층계급 출신일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고등교육 이수 기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논문의 주된 연구 질문인 가족배경에 따른 젠더 차이(F/M)는 상층계급의 젠더 차이가 하층계급보다 적어, 가족배경과 젠더 차이의 상호연관성이 빈도 분석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1943-1952년 코호트의 경우,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전문직·관리직 계급 출신 여성이 남성에 비해 50% 낮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젠더 격차는 농민계급 출신 여성의 이수 비율이 남성의 17% 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흥미롭게도 노동자계급 출신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66%의 이수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전문직·관리직계급 출신보다 적은 젠더 차이를 보인 이유는 노동자계급 출신 남성이 다른 계급에 비해 낮은 고등교육 이수 비율을 보인 반면에, 여성은 자영업과 농민계급 출신보다 높은 이수 비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이수 비율의 젠더 격차는 젊은 코호트일수록, 상층계급 출신일수록 감소되어 1964-1972년 전문직·관리직 계급 출신에서는 남녀차이가 거의 없어졌다(0.99%). 〈표 4〉의 빈도 분석을 통해 젠더와 가족배경 간의 상호관련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고, 다음의 로짓분석을 통해 고등교육이수에 영향을 준 젠더와 가족배경효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살펴본다.



<표 4> 고등교육이수 비율: 성, 코호트, 아버지의 계급별 분포  
(단위: %)

아버지의 계급	1943-1952			1953-1962			1963-1972		
	남성	여성	(F/M)	남성	여성	(F/M)	남성	여성	(F/M)
전문직·관리직	50.0	25.0	0.50	65.7	38.9	0.59	70.2	69.6	0.99
사무직	44.6	13.9	0.31	49.5	28.4	0.57	67.2	45.5	0.67
자영업	20.5	7.9	0.37	28.8	16.1	0.55	47.2	33.9	0.71
농민	12.6	2.2	0.17	17.5	2.8	0.16	31.5	11.5	0.36
노동자계급	15.3	10.2	0.66	21.4	6.5	0.30	35.9	25.6	0.71

주: M(남성), F(여성)

## 2) 분석 결과

### (1) 비연속적 모델

<표 5>는 고등교육 이수기회에 미친 젠더와 가족배경 효과의 비연속 로짓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상층계급 출신 자녀의 고등교육 이수기회가 더 높고, 이러한 가족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코호트별로 지속된 경향이 있다. 1943-1952년 코호트의 경우, 남녀 모두 동일하게 고등교육 이수기회가 농민계급 출신에 비해 전문직·관리직 출신이 6.9배( $e^{1.927}$ ), 사무직은 5.2배( $e^{1.649}$ ), 자영업은 1.9배( $e^{0.634}$ ) 높았다. 젠더 차이는 남성이 6.5배( $e^{1.869}$ ) 높은 이수기회를 보이며 가족배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차이를 보인다. 예외적으로 노동자계급 출신에서 가족배경과 젠더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다른 계급보다 낮은 젠더 차이를 보였다(남성이 1.7배 높은 이수기회,  $e^{(1.869-1.347)}$ ).

<표 5> 젠더와 가족배경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기회 로짓분석

	1943-1952		1953-1962		1963-1972	
	b	se	b	se	b	se
아버지 계급						
농민(기준계급)	-		-		-	
전문직·관리직	1.927 <sup>***</sup>	0.321	2.221 <sup>***</sup>	0.228	1.578 <sup>***</sup>	0.217
사무직	1.649 <sup>***</sup>	0.292	1.569 <sup>***</sup>	0.216	1.506 <sup>***</sup>	0.215
자영업	0.634 <sup>**</sup>	0.271	0.727 <sup>***</sup>	0.190	0.732 <sup>***</sup>	0.171
노동자계급	0.242	0.366	0.226	0.238	0.165	0.170
여성	-1.869 <sup>***</sup>	0.286	-1.989 <sup>***</sup>	0.224	-1.283 <sup>***</sup>	0.148
전문직·관리직 계급×여성	0.730	0.542	0.878 <sup>**</sup>	0.357	1.277 <sup>***</sup>	0.297
사무직×여성	0.295	0.608	0.974 <sup>***</sup>	0.374	0.332	0.303
자영업×여성	0.700	0.542	1.213 <sup>***</sup>	0.354	0.729 <sup>***</sup>	0.253
노동자계급×여성	1.347 <sup>**</sup>	0.661	0.669	0.531	0.808 <sup>***</sup>	0.267
한부모(어머니)	-0.188	0.267	-0.612 <sup>**</sup>	0.242	-0.992 <sup>***</sup>	0.208
연령	0.058 <sup>**</sup>	0.029	0.106 <sup>***</sup>	0.021	0.030 <sup>*</sup>	0.017
상수	-2.267 <sup>***</sup>	0.221	-3.205 <sup>***</sup>	0.357	-1.455 <sup>***</sup>	0.425
R <sup>2</sup> (pseudo)	0.141		0.181		0.133	
N	1,781		2,619		2,473	

\*\*\* p<.01, \*\* p<.05, \* p<.1

1953-1962년 코호트와 1963-1972년 코호트에서는 출신 계급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기회 유형이 이전 코호트(1943-1952년)와 비슷하게 상층계급 출신일수록 높은 이수기회를 갖는다. 1943-1952년 코호트와 다르게 고등교육 이수기회의 젠더 차이가 출신 계급별로 상이하

다. 1943-1952년 코호트의 경우 노동계급을 제외한 다른 출신 계급은 동일한 정도의 젠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두 코호트(1953-1962년, 1963-1972년)에서는 가족배경에 따른 젠더 차이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1953-1962년 코호트에서는 농민과 노동자계급 출신 남성이 여성보다 7.3배 더 높은 고등교육 이수기회를 갖지만, 전문직·관리직 출신은 3배, 사무직은 2.8배로 젠더 차이가 감소된다. 1963-1972년 코호트에서도 전문직·관리직 출신은 젠더 차이가 거의 없으며( $e^{0.006}$ ), 자영업은 1.7배, 농민은 3.6배, 노동자계급 출신은 1.6배로 이전 코호트보다 젠더 차이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비연속적 모델을 통해 고등교육 이수에 나타난 가족배경과 젠더에 따른 교육불평등이 세 코호트에 걸쳐 지속적이며, 젠더와 가족배경의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는 1943-1952년 코호트를 제외한 나머지 두 코호트에서 존재함을 밝혔다. 이것은 1943-1952년 코호트의 부모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여성의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후 코호트보다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부모의 경제적 조건(여기서는 아버지의 계급)과 상관없이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 정도가 동일하지만, 이후 두 코호트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조건과 여성 교육에 대한 부모 인식이 상호작용하여 상층계급 출신일수록 젠더 차이가 적거나 존재하지 않게 된다.

## (2) 연속적 진학모델

앞의 비연속적 고등교육 이수기회 분석 결과는 고등교육 졸업/비졸업 확률비 분석으로, 고등교육 이전 단계에서는 젠더와 가족배경

불평등 효과가 동일한지 다른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속적 진학 모델을 통해 고등교육에 도달하는 전 과정에서의 교육 불평등을 살펴보는 본 분석에서는 ①가족배경 효과가 교육단계별로 차이가 있는가 ②젠더와 가족배경의 상호작용이 각 교육단계별로 차이가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설명한다.

#### ① 1943-1952년 코호트

1943-1952년 코호트는 <표 2>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1950년-1959년, 졸업시기가 1956-1965년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상급학교 진학 전체 과정에서 교육확대 정책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한 특징이 있다. 한국의 교육확대 정책은 초등교육에서 중등으로 확대되고 이후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순차적인 과정으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완전 취학률이 1959년에 이뤄지면서(문교부, 1988)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데 비해 공급이 모자랐으며, 또한 중학교 무시험입학제도가 1969-1971년에야 도입되었기 때문에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으로는 초등학교 입학과 재학 중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생긴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피난과 이산가족, 가족의 죽음 등을 경험한 세대로서 초등학교 입학과 학업 지속이 다른 세대보다 더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표 6> 젠더와 가족배경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기회 로짓분석:  
1943-1952 코호트

	중학교(t1)		고등학교(t2)		고등교육(t3)	
	b	se	b	se	b	se
아버지 계급						
농민(기준 계급)	-		-		-	
전문직·관리직	2.507**	1.017	1.074**	0.424	1.543***	0.358
사무직	1.852**	0.739	1.632***	0.479	1.108***	0.313
자영업	0.605*	0.310	1.467***	0.344	0.166	0.288
노동자계급	-0.279	0.305	0.191	0.326	0.295	0.400
여성	-1.409***	0.115	-0.871***	0.141	-1.086***	0.306
전문직·관리직×여성	-0.460	1.119	0.326	0.538	0.118	0.591
사무직×여성	-0.005	0.868	-0.104	0.638	-0.274	0.641
자영업×여성	0.243	0.372	-0.455	0.438	0.410	0.573
노동자계급×여성	0.165	0.454	0.620	0.587	1.229	0.759
한부모(어머니)	0.006	0.184	-0.247	0.200	-0.186	0.292
연령	0.128***	0.020	0.023	0.024	0.034	0.032
상수	0.611***	0.136	0.495***	0.169	-1.305***	0.243
R <sup>2</sup> (pseudo)	0.126			0.075	0.069	
N	1,781		1,230		790	

\*\*\* p<.01, \*\* p<.05, \* p<.1

<표 6>은 1943-1952년 코호트의 상급학교 진학기회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로 상층계급의 자녀일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상급학교 진학기회 확률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먼저 각 교육단계별 가족배경과 젠더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t1)에서 농민 출신의 자녀보다 전문직·관리직, 사무직, 자영업계급 출신 순으로 진학 기회가 높다. 젠더효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4.1배 ( $e^{1.409}$ ) 높으며, 이러한 젠더 격차는 모든 출신 계급에서 동일하다. 두 번째, 중학교를 졸업한 응답자 중 고등학교 진학 기회(t2)에서 출신 계급효과는 이전 단계인 t1과 비슷하지만, 출신계급 불평등 정도가 자영업을 제외하고 완화된 특징을 보인다(전문직·관리직 2.9배, 사무직 5.1배, 자영업 4.3배로 높다). 젠더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고등학교 진학기회가 2.4배 더 높으며, t1과 동일하게 젠더와 출신 계급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세 번째, 고등학교 졸업자 중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학할 기회(t3)에서 농민 출신에 비해 전문직·관리직 계급(4.7배)과 사무직 계급(3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젠더 차이는 남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기회가 여성보다 3배 높았다. 이 단계에서도 젠더와 출신 계급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했다.

요약하면 매어(Mare, 1981)가 언급하였듯이 가족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초기 단계에서 가장 컸으며, 상급 교육단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전문직·관리직 계급 출신 자녀가 농민 계급 출신 자녀보다 중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할 확률은 12.3배( $e^{2.507}$ ) 높고, 고등학교는 2.9배( $e^{1.074}$ ), 고등교육은 4.7배( $e^{1.543}$ )로 높아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할 때 계급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학교로 진학할 때 계급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중학교 진학 자체가 고등교육 이수를 염두에 둔 학생과 학부모의 첫 선택 단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젠더 차이와 관련해서는 역시 중학교 진학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남성이 여성보다 4.1배, 고등학교는 2.4배,

고등교육은 3.0배로 더 높은 이수기회를 갖는다. 젠더 차이에서도 낮은 교육단계에서 제일 큰 격차를 보이고, 고등교육이 그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젠더와 출신 계급의 상호작용은 세 단계의 상급학교 진학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나, 출신계급별 젠더 차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앞의 비연속적 모델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만 있는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또는 아버지만 있는 가족과의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1953-1962년 코호트

1953-1962년 출생 코호트는 이전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이 대중화된 세대로, 90.4%의 남성과 83.4%의 여성이 중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다. 따라서 중학교 미진학자가 적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로짓 분석만 한다. 아래의 <표 7>은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미친 가족배경과 젠더 효과 로짓 분석 결과이다.

<표 7> 젠더와 가족배경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기회 로짓분석:  
1953-1962년 코호트

	고등학교(t1)		고등교육(t2)	
	b	se	b	se
아버지 계급				
농민(기준 계급)	-		-	
전문직·관리직	3.453***	1.008	1.839***	0.235
사무직	1.818**	0.464	1.202***	0.223
자영업	0.826**	0.249	0.537***	0.199
노동자계급	0.225	0.254	0.199	0.254
여성	-0.958***	0.111	-1.657***	0.230
전문직·관리직×여성	-1.507	1.061	0.726*	0.370
사무직×여성	-0.608	0.535	0.869***	0.387
자영업×여성	0.193	0.332	1.027***	0.365
노동자계급×여성	0.227	0.361	0.521	0.552
한부모(어머니)	-0.401**	0.174	-0.502**	0.255
연령	0.107***	0.019	0.065***	0.022
상수	-0.431	0.300	-2.074***	0.373
R <sup>2</sup> (pseudo)	0.102		0.126	
N	2,277		1,706	

\*\*\* p<.01, \*\* p<.05, \* p<.1

먼저 각 교육 단계별 진학에 미친 가족배경과 젠더 효과를 보면 첫 번째,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확률(t2)이 농민 계급 출신에 비해 전문직·관리직 계급 출신이 31.6배나 더 많은 이수기회를 갖는다. 그 다음으로 사무직이 6.2배, 자영업 2.3배로 높았으며, 노동자 계급 출신과 농민 계급 출신은 진학기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젠더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2.6배 더



높은 진학기회를 갖는다. 젠더와 출신 계급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했다. 양부모(또는 아버지만) 가족의 자녀는 어머니만 있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보다 1.5배 정도 더 높은 진학기회를 가진다.

두 번째, 고등학교 졸업자 중 고등교육기관 진학기회(t3)는 앞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상층계급 출신의 자녀가 더 높은 기회를 갖는다. 젠더 차이와 관련해서는 중학교 진학(t1)과 달리 출신 계급별 젠더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나, 농민계급 출신과 노동자계급 출신의 젠더 차이가 가장 커서 남성이 여성보다 5.2배 더 높은 고등교육 이수 기회를 가진다. 반면에 상층계급(전문직·관리직, 사무직 등)에서는 남성의 교육 기회가 이보다 훨씬 적은 약 2배 정도 높은 이수 기회를 보인다.

요약하면 1953-1962년 코호트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가족배경 차이가 가장 컸으며, 특히 전문직·관리직 계급 출신이 다른 계급에 비해 매우 높은 진학 기회를 가졌다.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상급학교 진학 기회는 고등학교 진학(t2)에서는 출신 계급 차이 없이 동일하지만, 고등교육 기관 진학(t3)에서는 출신 계급 차이가 두드러졌다(앞의 비연속 모델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진학에서의 젠더와 출신 계급 상호작용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농민과 노동자계급 출신 여성들이 다른 상층계급의 여성보다 진학 기회가 더 적었다.

### ③ 1963-1972년

1963-1972년 코호트는 중학교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중학교 교육을 받은 세대이지만, 산업화와 경제발전,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미 중등교육이 대중화되어 사회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학력이 고

등학교로 확산된 시점이다. 따라서 실업계와 일반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아 본 논문의 분석 자료에서도 고등학교졸업 미만 비율이 남성 9.4%, 여성 10.9%로 매우 적었다.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기회에 대한 로짓분석을 생략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중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 여부에 대한 가족배경과 젠더 차이를 분석한다. 다음의 <표 8>은 1963-1972년 코호트의 고등교육 이수에 나타난 젠더와 가족배경 효과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8> 젠더와 가족배경에 따른 상급학교진학기회 로짓분석:  
1963-1972년 코호트

	고등교육기관	
	b	se
아버지 계급		
농민(기준 계급)	-	
전문직·관리직	1,464 <sup>***</sup>	(0,221)
사무직	1,494 <sup>***</sup>	(0,226)
자영업	0,770 <sup>***</sup>	(0,179)
노동자계급	0,205	(0,175)
여성	-1,262 <sup>***</sup>	(0,152)
전문직·관리직×여성	1,283 <sup>***</sup>	(0,304)
사무직×여성	0,175	(0,312)
자영업×여성	0,616 <sup>*</sup>	(0,261)
노동자계급×여성	0,765 <sup>***</sup>	(0,275)
한부모(어머니)	0,880 <sup>***</sup>	(0,212)
연령	0,018	(0,017)
상수	-0,997 <sup>**</sup>	(0,436)
R <sup>2</sup> (pseudo)	0,125	
N	2,222	

\*\*\* p<.01, \*\* p<.05, \* p<.1

고등교육기관 진학에서 가족배경과 젠더 차이는 이 세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농민계급 출신에 비해 전문직·관리직, 사무직, 자영업 출신의 진학 기회가 높고, 젠더 차이는 출신 계급 간 상이하다. 아버지가 농민과 사무직인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3.5배 높으며, 자영업과 노동자계급은 1.9배, 1.6배로 높다. 흥미롭게도 전문직·관리직 출신에서는 고등교육 이수기회의 젠더 차이가 없다. 이 같은 결과는 비연속 모델 분석결과와 통계 수치만 조금 다를 뿐 전체적인 불평등 경향은 동일하다.

## 5. 요약과 함의

본 논문은 고등교육 이수 기회와 관련하여 젠더와 가족배경 차이를 로짓 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가족배경은 아버지의 직업을 기반으로 한 계급을 사용하였고, 분석 시기는 현대적 교육체계가 도입되고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된 1950년부터 1990년대까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6-55세 응답자만을 선택하여 세 코호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세 코호트는 젠더 차별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의무교육의 확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출생년도를 중심으로 1943-1952년, 1953-1962년, 1963-1972년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코호트의 교육 이수 시기는 55세 응답자의 초등교육이 시작된 1950년부터 26세 응답자의 고등교육 진학과 이수가 시작되는 1991년까지이다(〈표 2〉참고). 분석 방법은 고등교육 이수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비연속적 모델과 고등교육 이수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의 이수과정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는 연속적 모델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항 로짓분석(binary logi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비연속적 진학모델은 고등교육에 도달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비연속적 고등교육 진학 모델에서 상층계급 출신의 자녀일수록 고등교육 이수 기회가 높은 가족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1943-1952년, 1953-1962년, 1963-1972년 세 출생 코호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젠더 차이와 관련해서는 1943-1952년 코호트에서는 여성의 교육 불평등이 출신계급과 상관없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1953-1962년, 1963-1972년 코호트에서는 가족배경에 따른 젠더 차이가 존재하여, 상층계급 출신의 젠더 차이가 농민, 노동자계급 출신 차이보다 적었다. 둘째, 가족배경과 젠더 차이를 상급학교 각 단계별 이수 기회로 분석한 연속적 모델에서는 상층계급 출신 자녀일수록 상급학교 이수 기회가 더 컸으며, 이러한 이수 기회의 계급 차이는 교육의 낮은 단계에서 불평등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기회에서 가족배경에 따른 기회 차이가 가장 높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 진학 기회의 순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매어(Mare, 1981)가 지적한 것처럼 고등교육기관 이수를 기대할 경우, 이미 초기교육단계에서 학생 본인과 부모의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젠더 차이와 관련해서는 출생 코호트별, 그리고 교육 단계별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1943-1952년 코호트의 경우 젠더와 출신 계급 간의 상호작용은 세 단계의 상급학교 이수 분석(t1, t2 t3)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즉 출신 계급과 상관없이 여성의 교육 이수기회 불평등 정도는 동일하였다. 그러나 1953-1962년 코호트와

1963-1972년 코호트 모두에서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 이수기회(t3)에서 출신 계급별로 상이한 젠더 차이가 나타났다.

요약하면 고등교육 이수기회에 대한 연속·비연속 모델을 통해 가족배경에 따른 젠더 불평등이 존재하며 세 코호트에 걸쳐 이러한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젠더와 가족배경 상호작용은 1943-1952년 코호트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이후의 두 코호트(1953-1962년, 1963-1972년)에서는 상층계급 출신의 젠더 차이가 적었다. 또한 이러한 교육 불평등이 교육단계별로 어떠한지 살펴 본 상급학교 이수기회에 대한 연속적 모델 분석은, 가족배경에 의한 불평등이 교육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교육 초기 단계는 각 코호트별로 달라 1943-1952년은 중학교 단계, 1953-1962년은 고등학교가 초기 단계에 속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교육 초기 단계를 거쳐 상급학교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과 부모는 가족의 경제적 조건이 경쟁 가능하거나, 경제적 조건이 뒷받침 되지 않아도 경쟁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일 가능성이 높아, 단계에서의 가족배경에 따른 차이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젠더 차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단계별로 상이한 젠더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젠더 격차는 또한 출신 계급에 따라 달랐다. 특히 1963-1972년 코호트의 경우 전문직·관리직 계급 출신에서는 고등교육 이수기회에서 젠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 이수기회의 가족배경과 젠더 효과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교육단계 이상을 이수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배경과 젠더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여성의 교육 이수 기회가 출신 계급별로 다르며, 코호트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1943-1952년 코호트 여성들은 출신계급에 상관없는 동일한 정도의 남녀 격차를 보이지만, 이러한

교육 불평등은 이후의 두 코호트에서는 상층계급 출신의 젠더 차이가 적어 가족배경과 젠더 차이가 서로 연관된 지점을 증명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교육불평등 연구에서 기존의 가족배경과 젠더 차이의 독립된 영향 연구에서 한발 나아가, 젠더 격차가 출신 배경에 상관없는 일반적 차별에서 점차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급에 따른 선택적 차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가 있다.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으로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가족배경과 젠더가 교육 불평등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김기현, 2004; 김영화, 2000; 장상수, 2001; Goldthorpe, 2000; Halsey et al., 1980; Jonsson et al., 1996; Mare, 1981; Park, 2007; Phang, 2004; Shavit and Blossfeld, 1993), 여성의 교육 기회가 전통적인 남성중심 문화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중층적으로 영향을 받는 점은 덜 부각되었다. 가족배경과 젠더의 상호연관성은 교육 불평등에서의 젠더 차이에 대한 분석을 교육연한으로 분석한 성문주(2009)의 연구 결과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고등교육 이수 기회와 교육단계별 불평등(상급학교 진학과 이수)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가족배경에서 어머니의 직업과 교육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남성 중심적 연구방법으로 비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인 응답자가 1943-1972년 출생자로, 응답자의 어머니가 농민 또는 전업주부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아버지 계급만으로 가족배경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배경과 젠더 차이의 상호연관성을 밝히는 것에 국한되어 젠더 차이의 현재적 의미와 젠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논의가 부족한 점 역시 본 논문의 한계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된 연구 목적이 기존의 교육불평

등 연구에서 가족배경과 젠더 효과를 각각 독립적인 메커니즘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기에, 향후의 연구에서 교육에서의 젠더 차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안과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이후의 연구 과제로는 고등학교 진학자의 80%이상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고 최근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을 추월하는 것과 관련하여(통계청, 2010), 2000년대 이후의 교육불평등 연구는 교육이수 여부보다는 어떤 교육을 이수했느냐의 문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즉 고등교육기관 내에서도 전문대와 대학교 이수의 차이, 전공분야에서도 의대, 법대 진학은 다른 전공 학문과의 졸업 후의 삶의 기회에서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의 차이와 전공분야의 차이 분석을 통해 좀 더 심층적인 젠더 차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2), 『교육통계분석자료집』.  
\_\_\_\_\_ (2005), 『교육통계연보』.
- 김기현(2004), “가족배경의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8집 5호, 109-142쪽.
- 김영화(2000), 『한국의 교육과 사회』, 서울: 교육 과학사.
- 성문주(2009),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학력효과에 대한 젠더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제26집 1호, 109-134쪽.
- 장상수(2001), 『한국의 사회이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 (2006),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기회: 누가 왜 딸을 대학에 보냈는가?”,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40집 1호, 127-156쪽.
- 문교부(1988), 『문교40년사』, 문교부.
- 통계청(1998), 『1998 사회조사』, <http://www.kosis.kr/>(검색일, 2010.4.14).
- \_\_\_\_\_ (2002), 『2002 사회조사』, <http://www.kosis.kr/>(검색일, 2010.4.14).
- \_\_\_\_\_ (2004), 『2004 사회조사』, <http://www.kosis.kr/>(검색일, 2010.4.14).
- \_\_\_\_\_ (2006), 『2006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_\_\_\_\_ (2010), 『201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Becker, G. S.(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oudon, R.(1974), *Education, Opportunity, and Social Inequality: Changing Prospects in Western Society*, New York: Wiley.

Bowman, M. J., and C. A. Anderson(1982),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Education in the Third World”, in *Women’s Education in the Third World: Comparative Perspectives*, ed. G. P. Kelly, and C. M. Elliot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11-30.

Brinton, M. C.(1933), *Woman and Economic Miracle: Gender and Work in Postwar Japan*, Calif.: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rikson, R., and J. H. Goldthorpe(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Clarendon Press.

Goldthorpe, J. H.(2000), *On Sociology: Numbers, Narratives, and the Integration of Research and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lsey, A. H., A. F. Heath, and J. M. Ridge(1980), *Origins and Destinations: Family, Class and Education in Modern Brita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Jonsson, J. O.(1993), “Persisting Inequalities in Sweden”, in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ed. Y. Shavit and H. P. Blossfeld, Boulder, Colo.: Oxford: Westview Press, pp. 101-132.

- Jonsson, J. O., Colin M., and Walter M.(1996), “A Half Century of Increasing Educational Openness? Social Class, Gender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Sweden, Germany and Britain”, in *Can Education Be Equalized? The Swedish Case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 R. Erikson, and J. O. Jonsson, Boulder Colo.: Oxford: Westview Press, pp. 183-206.
- Kelly, G. P., and C. M. Elliott(1982), “Orientation toward the Study of Women's Education in the Third World”, in *Women's Education in the Third World: Comparative Perspectives*, ed. G. P. Kelly, and C. M. Elliot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1-7.
- Mare, R. D.(1981), “Change and Stability in Educ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6(1), pp. 72-87.
- Park, H.(2007), “Educational Expans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in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ed. Y. Shavit, R. Arum, and A. Gamoran,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87-112.
- Phang, H.(2004), “Educational Inequality in Korea: Recent Trends and Persistent Structure”, *Korea Journal*, 44(1), pp. 42-74.
- Seong, M. J.(2009), “Gender Inequality in Educational Attainment in South Korea, 1950s-1990s”, *The Women's Studies*, 77(2), pp. 179-206.

Shavit, Y., and H. P. Blossfeld(eds.)(1993),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Boulder, Colo.; Oxford: Westview Press.

원고접수: 2011. 04. 25

원고수정: 2011. 05. 24

게재확정: 2011. 06. 03

〈Abstract〉

## Gender and Educational Inequality: The Effect of Gender and Family Economic Class on Higher Education

Moon-Ju Seong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gender and economic class on educational attainment during the 1950s-1990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schooling transition. Using the 1998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data, this study shows that respondents from upper class families tend to transit to higher educational levels more than lower class families. In terms of gender, the probability of schooling transition is higher for men. Interestingly, the gender gap varies between cohorts and educational levels. Overall, there is no statistically meaningful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economic class for those from the 1943-1952 cohort in schooling transition.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economic class for the 1953-1962 and the 1963-1972 cohorts. The gender gap is smaller for upper class familie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gender gap in educational attainment is closely related to economic class.

**KEY WORDS:** schooling transition, higher education, gender, economic class, educational inequality